

# 제1회 ‘김영진부동산학상’ 이창석 후보자 추천서

- 이창석 석좌교수의 삶과 수상후보자 추천 -

김영진부동산학상위원회 귀중

## (1)

포항종합제철의 공장 굴뚝이 서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이창석 교수의 생가 터입니다. 그곳에서 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의붓어머니(계모) 아래서 그곳 대송(大松)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가난한 아이들이 다녔다고도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한 포항동지중학교를 3년간 학력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의붓어머니는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그를 고등학교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 (2)

이창석은 안동에서 사업과 신문지국을 운영하시는 삼촌 집을 찾아가 진로를 상의하였습니다. 삼촌의 배려로 삼촌집에 있으면서 사업도 도우면서 새벽마다 신문배달 하는 일로 얻은 수익으로 생활하면서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3년간을 삼촌의 사업을 도우는 일과 함께 이른 새벽과 늦은 아침까지 지국의 잡무를 정리하고 뛰어다니며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청소년기가 뉘지 모르게 3년이 지나 갔습니다. 삼촌 집 밥을 먹는 생활이 여간 쉽지는 않았답니다. “그때 인내 해야 하는 인생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 (3)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강해지고 싶어 해병대를 지원해 만기 제대했습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1970년 공직자로서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이 불과 24세였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치고 처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서울에서의 주거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대학교 제19대 총장을 역임하신 유기천 교수께서 큰집에 혼자계셨기에 함께 생활할 젊은이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교차한 이해관계가 내재된 가운데 그 당시 외삼촌인 김성룡 공군참모총장은 유기천 총장님과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서 만나신 후, 이창석에게 동숭동 유기천 총장택에 정착하도록 권유가 있어서 유기천 총장 소천할 때까지 가족처럼 한집에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교법인 이화학당인 국제대학 법경학부를 다녔습니다.

## (4)

그후 청년 이창석은 공무원생활에서 건국대 법인교직원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 당시 유기천 총장님의 배려로 학자의 길로 가기 위하여 건국대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본관 3층에 근무할 때 어느 날 같은 건물 3층에 교수실이 있는 ‘부동산학의 시조 김영진 교수’께서 찾아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과정을 지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부동산학과는 건대의 간판이 었고 그때에도 우수한 응시자가 참 많은 때입니다.

김 교수께서 지도 교수가 되어 ‘부동산학 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논문을 쓰며 철저히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직후 김 교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박사과정이 없으니 부동산학 관련 석사를 하나 더 하세요.”라고 권유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석사를 하나 더 했습니다.

“이 순종”이 부동산학의 큰 세계를 이룬 김영진 교수께 직접 강의를 듣고 지도를 받은 문하생으로서 대학교수가

되어 오늘까지 한국부동산학계에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에 따라 온 더 큰 선물(은혜)이었습니다.”라고 이창석 교수는 말씀합니다.

지금 이창석 교수는 김영진 교수의 철학과 사상을 창의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동양권 부동산학계를 상징하는 ‘동양권 부동산학 총학회장’으로 제67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서울대학교)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헌신 중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창석 교수를 동양의 대표적 부동산학자, 부동산학의 석학(碩學)이라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 (5)

김영진 지도교수의 권유에 순종, 부동산학의 인접학문인 도시공학전공의 석사를 하나 더 했던 것은 나중에 강남대학교 교수채용 평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전임교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어서는 한집에 같이 거주하는 유기천 총장님의 적극 권유로 박사과정을 일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천 총장님이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교수 와도 상의 하였습니다. 그후 유기천 총장님의 도움으로 ‘일본 고베대학교’에서 연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박사학위 (Ph. D.)도 받았습니다. 또한 이창석 교수는 해병대 제대 후부터 유기천 총장님과 30여 년 간을 한집에서 한 솥밥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유 교수님이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지금까지도 “그 분의 학술적 유업 관리에 함께하기 위해 유기천재단이사로 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 (6)

강남대학교에 첫 부임, 서른일곱 살에 첫 제자의 학부모님이 소개한 그분의 처체와 결혼해서 아들 둘도 낳아서 기렸습니다. 큰 아들은 부동산학박사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둘째는 전자공학도로서 LG그룹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성실히 일해 촉망받고 있습니다. 아내께서는 평생교직생활에서 은퇴했습니다. ‘이창석 교수는 전에도 지금도 부동산학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어려우면 인세 떼이고, 공저자에게 인세받기 전에 본인 돈으로 다주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삶을 그동안 기적처럼 모든 것을 은혜(선물)로 받았으니 여한 없이 사회를 위해서 대가 없이” 다 바치겠습니다.

### (7)

이처럼 이창석 석좌 교수의 삶의 이야기는 내 삶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김영진 교수의 학문적 사상과 철학을 창의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영감을 주어 우리사회와 동양권 부동산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제1회 ‘김영진부동산학상’ 수상 후보자로 흔쾌히 추천합니다.

**#첨부 : 이창석 수상후보자 업적 및 공적서 1부 끝**

2020년 5월 7일

- 추천인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겸 단국대도시부동산연구소장

한국부동산학회장, 부동산학 교수 **이 호 병 (인)**